

용병 외야수 누굴 씬할까?

KIA, 에레라·마르티네스·브롬바 놓고 저울질



<에레라> <마르티네스> <브롬바>

KIA 타이거즈가 국내 무대에서 뛰었던 외야수 출신 용병 타자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KIA는 국내에서 2년여정도 뛰었던 용병 타자 중 외야수 포지션에 초점을 맞춰 접촉중인 상태.

물망에 오른 선수는 호세 에레라(35), 매니 마르티네스(37), 클리프 브롬바(33) 등 3명이다.

에레라는 2001년 SK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 첫 얼굴을 내비친 선수. 데뷔 첫해에 타율 3할4푼, 15홈런, 63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강한 인상을 남긴 에레라는 2002년 롯데로 이적했으나 당시 백인 천 감독의 '외국인 선수는 필요없다'라는 방침에 따라 방출됐다.

롯데에선 53경기에 출전, 타율 0.305, 6홈런 20타점을 기록했다. 수비능력은 다소 조금 떨어지지만 국내에서 3할 타율을 보장하는 용병 교타자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1년 삼성을 통해 국내 무대에 첫 도전한 마르티네스는 그해 25홈런 96타점(타율 0.278)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어 2002년과 2003년에는 LG로 트레이드 돼 15홈런 69타점(0.279), 17홈런 70타점(0.273)으로 기록없는 꾸준한 실력을 보여줬다. 수비에서도 강한 어깨와 정확한 송구로 외야수로서 합격점을 받았다. LG측은 2004년 투수 보강을 명분으로 마르티네스를 방출했다.

브롬바는 타이론 우즈(주니치)와 함께 역대 최고 용병 타자로 인정받은 선수.

2003년 현대에 입단한 브롬바는 3할 타율과 14홈런을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우승을 견인했고, 다음해에도 타율(0.343), 장타율(0.608), 출루율(0.468)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했던 브롬바는 2004시즌을 마친 뒤 제2의 우즈가 되겠다고 연봉 8천만엔을 받고 일본프로야구 오릭스로 이적했다.

다. 브롬바는 그러나 일본 프로야구 적음에 실패했고, 현재 현대에서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IA가 이처럼 국내 무대 경험이 있는 용병을 물색하는 이유는 트리플A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타자들의 국내 프로야구 실패 사례가 적잖기 때문.

실제로 KIA는 올 시즌 '미국 트리플A 3할 타자' 서브네와 스콧을 영입했으나, 두 선수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에 머물렀다.

서브네는 40경기에 출전, 타율 0.224 4홈런에 머물렀고, 대체 용병 스콧 역시 48경기에서 0.163리(6홈런)로 빈타에 허덕였다. 두 선수를 영입하는데만 10억여원의 금액이 투입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시니어 피겨 첫 우승' 김연아 금의환향

“내달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욕심 없어요”

“자만하지 않고 올림픽때까지 최선을 다할 터”

국내 피겨 사상 처음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대회에서 우승한 '피겨요정' 김연아(16·군포 수리고)가 21일 금의환향했다.

프랑스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김연아는 이날 오전 8시30분 대한항공 590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시니어대회 첫

시즌에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 자격을 얻어 기쁘다. 하지만 파이널 대회에서 우승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또 “이번 대회전에 스케이트 부츠 한쪽을 바꿨는데 부츠가 잘 안맞아 고생이 심했다”면서 “1~2년전부터 스케이트가 발에 잘 맞지 않아 부상이 자주 생기고 있



국내 피겨 사상 처음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무대에서 첫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가 어머니 박미희씨와 21일 귀국, 축하꽃다발을 안은채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다”며 그동안 겪은 고생을 털어놨다.

김연아는 향후 목표에 대해서 “시니어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자만하지 않겠다”며 “밴쿠버 올림픽까지 더욱 경험을 쌓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 베르시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06~2007 국제빙상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성인무대 첫 우승의 쾌거를 이룬 김연아는 이 대회 상위권 입상자들만 참가하는 갈라쇼에서 다시 한번 우아한 은반쇼를 펼친 뒤 돌아왔다.

김연아는 다음 달 14일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파이널에 대비해 국내에서 체력훈련 위주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가다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올 시즌 여섯 차례 치러지는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여자 싱글 성적 상위 6명이 출전해 진행되는 ‘은반의 여왕’을 뽑는 대회로 김연아는 안도 미키(일본)에 이어 그랑프리 포인트 2위를 달리고 있어 대회 출전이 확정됐다.

김연아는 또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06 회장배 피겨스케이팅 랭킹대회에 출전해 국내 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그동안 무릎과 발목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해온 김연아는 짧은 시간 휴식을 취해 몸을 가다듬고 최상의 피겨 연기를 펼치기 위해 다시 은반에 설 계획이다.

“두달전 은퇴시켰으면 큰일 날 뻔 했죠”

■ 김연아 어머니 인터뷰

“두달 전 은퇴시키려고까지 했는데 그랬으면 큰일날 뻔 했다”

‘피겨 요정’ 김연아가 21일 인천공항에서 입국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박미희씨는 김연아를 은퇴시키려고 했다는 뒷얘기를 털어놨다.

박씨는 “다른 선수들은 스케이트 부츠 1켤레를 서너달씩 신는데 연아는 한 달도 못신다. 신체적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발전할 때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번 시즌은 부상도 있었고 정말 어

렵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이달 말 회장배 대회가 끝나면 일본으로 부츠 장인을 찾아가 맞춰 신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도 “두달 전 연아 어머니가 전화해서 우시면서 (김연아를) 은퇴시켰다고 하셔서. 부츠가 안 맞아서 너무 힘들다고 했다. 집까지 찾아가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박씨는 “그 때 은퇴시켰으면 큰일날 뻔 했다”면서 활짝 웃었다.

박씨는 딸에 대해 “점프할 때 각이 제대로 안 나오면 불경할 정도로 근성이 있고 모든

면에 예민한 편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김연아의 점프의 질이 좋다는 점을 기술적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점프 질이 좋아서 똑같은 점프를 해도 심판들이 플러스 점수를 준다”고 평했다.

기자회견에 같이 참석한 박분선 코치는 “캐나다와 프랑스 대회는 테스트하는 기분이었는데 성과가 좋았다.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체력 보강에 중점을 두겠다. 경기 전까지 최고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김연아에게 포상금 2천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페더러, 나달 꺾었다 테니스 슈퍼 매치



2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III'에서 세계랭킹 1위인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왼쪽)와 '왼손 천재'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강력한 포핸드와 백핸드 스트로크를 하고 있다. 페더러는 이 경기에서 올 한해 자신에게 네 차례 패배를 안긴 나달을 2-1(6-3, 3-6, 6-3)로 물리치고 공식전 포함 시즌 최승전을 승리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PGA 자신감 되찾는 기회”

■ 위성미, 日 남자프로골프 카시오월드오픈 출전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상금을 받고 싶어요”

23일부터 나흘간 일본 고치현 구로시오골프장에서 열린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카시오월드오픈에 출전하는 위성미(17·나이지골프)의 다짐이다.

미셀 위는 지난 5월 한국프로골프 SK텔레콤오픈에서 컷을 통과했지만 이후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유럽프로골프투어에서 실패를 보면서 ‘남자대회 출전은 무리’라는 혹평에 시달려왔기에 이번 대회에 나서는 각오는 각별하다.

더구나 작년 이 대회에서 단 1타가 모자라 컷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번 실패는 않는다’는 출사표를 냈다.

지난 17일 일찌감치 일본에 도착해 현지에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미셀 위는 그러나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썰렁해진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일본 도착 사실만 간단하게 알려줬을 뿐 지난해 쏟아졌던 ‘위성미 성대결 경제효과 20억엔’이나 ‘미셀 열풍 일본 상륙’ 같은 대대적인 언론 보도는 없다.

21일 아침에 발행된 일본 스포츠 신문 골프면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강자인 ADT행퍼인스에서 4위를 차지한 미야자토 아야가 내년에는 우승할 것이라는 기사가 머리로 올라왔고 위성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20일 고치현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불우 아동 보호 시설에 1천만엔을 기탁했다는 단신성 보도가 달랑 지면 한 구석에 자리 잡았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해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패했던 위성미는 오히려 이런 냉담한 반응이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미셀 위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작년에 어렵게 놓친 상금도 타고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서 내년 PGA 투어 대회 출전에 앞서 자신감을 갖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위성미가 21일 일본 고치현 구로시오골프장에서 열린 일본프로골프 카시오월드오픈 연습라운드에서 퍼트를 한 후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